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12, 종교적 다원주의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학자들뿐만 아니라 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이며,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종교가 있다는 사실, 10개 또는 12개의 주요 종교가 있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다른 종교가 있다는 사실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참 종교는 하나뿐인가, 아니면 신에게 이르는 길은 여러 개인가? 여기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종교적 다원주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여러 다른 종교가 궁극적인 현실로 이어지고, 여러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 종교적 배타주의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참이며 궁극적인 현실로 이어진다는 견해입니다. 종교적 포용주의라는 덜 알려진 견해는 참된 종교는 하나이지만 모든 종교적 신봉자는 참된 종교의 은밀한 추종자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준적인 견해는 다원주의, 배타주의, 포용주의입니다. 다원주의적 견해의 주요 지지자인 존 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0세기와 21세기에 주요 종교 철학자였습니다. 힉은 다양한 구원 체계가 근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현실과 올바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더 나은 상태로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의 다른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다른 종교, 신에 대한 모든 다른 믿음, 다양한 관행, 전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을 찾고 궁극적인 구원을 찾으려는 일종의 독특한 인간적 욕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희는 여기에 깊은 통일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종교가 많은 경우 매우 다르게 보이지만 모든 다른 종교 사이에는 일종의 핵심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구원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르는 대로, 우리가 인간 삶에서 그 열매를 관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변화의 몇 가지 다른 패턴을 구별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방식으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해 세상에서 물러나는 성인이나 종교적으로 독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원적 맥락에서와 같아요.

줄리안 오브 노리치, 스리 오로빈도, 또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고 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스펙트럼의 반대편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활동적이며, 심지어 신앙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조안 오브 아크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 그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변화의 결과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 종교적으로 독실한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경향이 있는 특정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분리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 아니면 활동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와 같은 특성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반영하는 행동 유형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희의 답은 세계 종교의 공유된 윤리적 통찰력에 의해 암시된 도덕적 기준을 사용하여, 즉 그가 말했듯이 우리가 사랑이나 연민이라고 부르는 타인에 대한 이기심 없는 배려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변화의 도덕적 핵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세계 종교의 독실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사랑과 연민의 이러한 미덕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Hick은 개인적 미덕이 다른 종교-문화적 전통 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말하며, 인용문에서, 우리는 어떤 위대한 종교 전통이 다른 종교 전통보다 사랑이나 연민을 더 많이 생산한다고 증명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적 전통,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등과 같은 주요 종교적 전통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종교적 전통이 미덕을 고취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일종의 동등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희은 상황에 대한 일종의 칸트적 분석을 제시하면서, 인용문에서, 마음은 인식에서 활동적이며, 종교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것에 자체적인 개념적 자원과 습관을 부과하거나 신이나 궁극적인 영적 현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념적 자원과 습관을 부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을 칸트적이라고 부르는데, 칸트의 인식론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걸러지지 않은 순수한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연의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한 합리적 범주와 개념적 형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 마음의 본성일 뿐입니다. 현실에 일종의 구조를 부과하여 우리가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그것이 인간의 인식적 조건에 근본적이며, 공간과 시간과 양과 질의 관점에서 대상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조차도 마음이 현실에 부과하는 개념이며, 우리는 세상이 그 자체로 어떤 것인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세상이 어떤지 알 뿐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칸트의 인식론적 움직임입니다. 희은 신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신성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대한 그러한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믿고, 그는 다양한 종교적 관점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범주를 제공하고, 우리가 신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적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히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인간의 개념과 직접적인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초월적 신적 현실을 가정합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일종의 종교적 또는 영적인 신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칸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인데, 다양한 종교적 신들과 절대적 존재들은 인간 의식의 다양한 역사적 형태 내에서 현실의 표현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 교리, 이론, 신학은, 예, 우리가 이러한 범주를 통해 해석한 궁극적 현실의 표현 또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현실, 그 자체로 신성함이 있고, 그런 다음 이러한 신학적, 종교적 범주와 개념을 통해 경험하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특정 개념과 범주에 따라 중심을 잡고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다른 종류의 종교적 전통이 있고, 같은 것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통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개념과 범주가 문화마다, 그리고 때때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은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을 제공합니다. 첫째, 세계 종교가 숭배하는 신들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들이 순수한 허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해석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은 다른 종교 집단과 전통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칸트와의 비유는 적절합니다. 칸트는 우리의 현재 경험이 환상이거나 허구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해석되었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적절하게 또는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합리적인 범주를 통해 그것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Hick은 궁극적인 현실인 신에 대한 우리의 종교적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것을 통해 해석하고 일종의 해석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또는 종교적 틀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성함 자체에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해석은 단순한 허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 신학적 범주에 영향을 받는 해석과 관점입니다.

둘째, 현실이 인간 개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서 형식적 논리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그는 칸트 분석이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에 대한 최상의 대안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모든 신적 경험은 단지 정신적 투사와 인간 상상력의 구성일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종교에 대한 그러한 자연주의적 해석을 거부한다.

칸트의 분석은 그것이 전부라는 자연주의적 생각에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종교는 순수한 허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현실입니다. 궁극적인 현실, 신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힉은 종교가 교리적으로 다른 몇 가지 수준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궁극적 현실, 즉 현실의 본질에 대한 개념의 관점에서입니다.

둘째, 형이상학적 믿음의 측면에서 종교는 이 점에서도 다릅니다. 우주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믿음. 무(無)로부터의 창조, 아니면 신의 존재로부터 나온 일종의 세계 발산일까요? 여러분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 당신은 한 번 살고 나면 영원히 내세입니다. 아니면 환생의 체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세계 종교들 사이에는

형이상학적 신념에 관한 온갖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제는 종교가 교리적으로 다른 또 다른 방식 입니다 .

예수, 나사렛, 무함마드, 고타마, 부처 등의 본질과 업적에 대한 믿음. 혁은 구원이 기독교에 국한된다는 오래된 배타주의적 교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칼 라이너의 포용주의적 관점, 즉 "다른 신앙을 가진 독실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익명의 기독교인이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견해를 언급합니다.

최근의 교황조차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배타주의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적어도 포용주의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통한 사람들이 클라크 피녹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비에는 어느 정도 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갈까요? 존 혁과 같은 사람의 종교적 다원주의까지 갈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 또는 적어도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데 동등하게 효과적일까요? 더 배타주의적인 부류이지만 관대한 배타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영국 학자 키스 워드입니다.

워드는 혁과 그의 다원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며, 워드가 다원주의적 논제를 특징짓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워드를 인용한 것으로, 그는 종교가 초월적 현실에 대한 타당하지만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다양한 반응을 제공하고, 자아를 초월하고 그 현실을 중심으로 무한히 더 나은 상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워드가 다원주의를 요약하는 방식입니다.

더욱이, 이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구원받거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자가 되기 위해 보편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편주의자가 아니어도 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원주의자가 아니어도 보편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조합이 있지만, 많은 다원주의자가 보편주의자입니다. 모든 주장이 무언가를 긍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무언가를 배제해야 한다고 Ward는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모든 진실 주장은 반드시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가능한 종교적 전통이 동등하게 진실되거나, 정통하거나, 타당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특정 종교가 신의 본질과 구원 등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한, 견해의 모순이나 상호 비양립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Ward는 극단적인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마도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진실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들이 경쟁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워드는 그가 하드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다원주의의 한 버전을 구별하는데, 이는 그가 극단적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하드 다원주의는 인용문에서 많은 주요 종교가 상호 배타적인 신념을 포함하지 않지만 구원과 실제에 대한 진정한 경험의 동등하게 유효한 경로라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를 나누는 양립할 수 없는 진실 주장이 많기 때문에 하드 다원주의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획이나 강경한 다원주의자들은 그것이 현실과 구원 과정에 대한 지식과 무관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양립할 수 없는 진실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른 종교들이 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서 똑같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강경한 다원론자는 궁극적으로 실재는 형언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획은 이 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거나 인간의 언어와 범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워드는 여기서 좋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현실이 형언할 수 없고, 궁극적 현실이 인간의 사고와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까? 무언가가 인간의 사고와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강경한 다원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는 어떤 진실 주장도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획이 하는 것처럼, 그가 모든 특정 종교적 범주를 초월하는 궁극적 현실이 있다고 확신할 정도로 어떻게 이론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초월적이라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적용한다고 가정하는 해석적 종교적, 신학적 틀을 초월하는 궁극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이 알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주장이 동등하게 타당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신학적, 종교적 틀과 그것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평가하려면 궁극적인 현실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

따라서 궁극적 현실과 그 의미에 대한 알 수 없음에 대한 주장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듯합니다. 궁극적 현실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이 거의 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워드는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가 유추적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신의 본성을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을 지적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것은 신의 본질입니다.

이 토마스적 관점은 우리가 신의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에 근거한다고 확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퀴나스는 분명히 히크의 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추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신의 진정한 본질을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이 저지른 오류, 즉 칸트의 오류는 워드에 따르면, 칸트는 본질적 현실이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적 경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면서, 칸트는 워드가 말했듯이, 인지적 의미의 허용 범위를 넘어 마음의 범주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식론이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본질적 또는 그 자체가 인간 인식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Ward는 Kant와 마찬가지로 John Hick이 실재에 대한 이론적 주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맥락에서도, 획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궁극적 현실에 대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워드는 획이 실재에 대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재가 본질적이거나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칸트의 주장을 포기하고 실재가 현실과 가치의 궁극적 통일이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더 나을 겁니다. 배타주의적 관점과 더 일치할 겁니다. 워드는 획이 인간 활동의 적절한 목표가 있다고 단언하는데, 그것은 현실 중심의 삶이며, 이는 그것이 의식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획은 벗어날 수 없는 특정한 핵심 배타주의 사상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워드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를 들어 기독교인으로서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일까요? 구원받기 위해 특정한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믿음, 어떤 인지 상태가 기독교 구원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유아, 영아 또는 낙태된 태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인지적 수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기독교인은 자궁 내에서 죽은 영아와 태아 중 적어도 많은 수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신은 할 수 있고, 만약 누군가가 그 관점을 견지한다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인지적 수용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나요? 그것은 당신이 인지적 성숙의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이 요구 사항이 된다는 표준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령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모호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질문의 측면에서 합리적 책임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며,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유신론자이고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씨름해야 할 질문입니다. 배타주의자, 포용주의자 또는 다원주의자이든,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워드의 답변은 형이상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분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세우신 행위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확실히 안전하고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립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의 일종의 표현이나 증상으로 보고 싶어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서 어떤 종류의 결과나 지표가 있을까요? 당신은 다음과 같은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인지적 구원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워드는 그가 방어 가능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버전의 다원주의를 제안합니다. 그는 그것을 소프트 다원주의라고 부르는데, 실재는 많은 전통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인간은 그 안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실제로 종교적 포용주의와 매우 흡사합니다.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의 포용주의. 그는 신이 특정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기독교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실제로 일한다는 일종의 기독교 포용주의자였으며, 심지어 다른 종교적 맥락이나 사람이 공식적인 종교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나 맥락에서도 일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포용주의자에 따르면,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에 대한 배타적인 진리는 하나뿐이며, 그것은 사람의 삶에 적용된 신의 은혜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지만, 신은 공식적인 기독교 종교적 실행의 맥락 밖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글썄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글썄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워드는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드의 헉스 다원주의 비판을 요약하자면, 헉스 다원주의는 다시 한 번, 궁극적인 현실, 궁극적인 신성한 현실인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확인합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경험은 동등하게 진짜이며, 그것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모든 경로는 동등하게 타당합니다. 문제는 워드가 주장했듯이,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명제가 참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명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경험이 동등하게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한 더 충만한 경험으로 가는 모든 경로가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헉스는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방법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헉스의 다원주의이고 그것이 워드의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